

# 간호대학생의 취업 준비 경험 연구

김윤주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Yun Ju, Kim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ep understanding for Senior Nursing Students of experiences for Preparing Employment. **Methods** : This study wer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f phenomenological method given by colaizzi(1978). **Results** : 5 Categories of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enior Nursing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were ‘They have help from Supportive System.’, ‘They were influenced by obstacle.’, ‘They made the most of one’s ability.’, ‘They experienced positive feeling.’, ‘They experienced negative feeling.’. **Conclusion** : The help of employment by professor and colleges were not only supportive system but also obstacle. Thus, We were in need of more development of the systematic employment support program.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for Preparing Employment

## I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발달 단계상 청년 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자신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하며, 새로운 인간 관계를 확립하고 가치 체계를 획득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발달과업뿐 아니라 학업, 진로 및 취업 문제와 그밖에 인간관계, 경제문제, 가족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2017년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간호 대학생은 19,000명 이상으로[2] 매년 20,000여명의 간호 대

학생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간호사는 2016년 한국 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별 취업자 상위 7위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전체 취업률이 높지만 전체 간호사의 48.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3,4], 2014년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활동 간호사수 14만 7,210명 중 상급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인원은 3만 6,473명(24.8%), 종합병원은 4만 6,700명(31.7%)으로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의 기회는 많지만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취업하기 위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4,5].

간호 대학생은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자하는 ‘괜찮은 병원’으로의 취업은 취업 지원자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 지각하는 취업 불안과 심리적 장벽은 매우 높고, 2017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1.3%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높고[6], 대학생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는 취업 스트레스로 나타났다[7,8].

간호 대학생은 높은 취업률로 취업이 용이하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간호학과 정원의 급증에 따라 좋은 취업을 위한 간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간호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 시키는 긍정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실제 취업준비 간호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며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간호 대학생의 취업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취업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9,10]와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11-13]. 반면, 당면한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취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업 준비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laizzi[14]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간호 대학생의 취업 경험을 밝힘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 대학생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졸업예정자가 취업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취업준비 과정에서 이들이 체험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과정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며 어떤 경험

을 하였는가?

둘째, 간호 대학생으로 체험한 취업준비과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간호 대학생의 취업 준비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4년제, 수도권 전문대, 지방 4년제, 지방 전문대에서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 중 편의표출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 하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 면담이 이루어졌다. 편한 시간에 조용한 카페에서 참여자가 여유 있고 안정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자가 연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자료수집 과정에서 참여자가 거부하거나 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말할도록 하였으며 면담자는 참여자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면담 내용은 메모되고 녹음되나,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연구가 종료된 후에 폐기됨을 밝히고 학술지나 학회 발표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렸다.

###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관련된 수업을 이수하였으며 국내외 질적 연구 학술대회에 연간 1회 이상 참여하였다. 또한 매월 질적 연구 월례회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자들과 연구경험을 공유하였고 저널에 다수의

질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이며 연구자료는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소형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면담은 개별 면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중에는 현장노트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특징,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자의 생각을 기록하였다.

면담은 대방적이고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의 의견이나 선입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참여자의 진술에 연구자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고, 참여자의 말을 해석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지양하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맥락에 맞는 추가 질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련의 절차를 철저히 따랐으며, 참여자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장을 참여 관찰하고 적극적인 경청자로서의 입장을 유지하였고, 면담 자료를 생생히 답을 수 있도록 녹음 작업을 세심히 관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 세계를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면담 즉시 면담 자료를 반복 청취 및 필사하여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참여 관찰 자료, 현장노트 등의 부수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의 민감도를 높이는데 활용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2차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를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자료파일에 참여자 이름은 참여자 1, 참여자 2 등의 가명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자료가 포

화상태에 이르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laizzi[14]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묶어 추상화시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필사한 면담내용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해 내고 두 번째로는 참여자에게 비슷한 속성의 진술들을 재 진술하게 하며 다른 참여자의 자료에서 같거나 비슷한 진술을 확인 하였다. 세 번째는 진술, 재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를 도출하고 네 번째는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 조직하였다. 다섯 번째는 주제모음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고 마지막 단계로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본질적인 구조가 간호학생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간호학생에게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본질적인 주제를 간호학생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에 직접 읽어보도록 하여 간호학생이 진술한 의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본질적인 주제와 간호학생의 경험사이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 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5]가 제시한 엄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중립성, 일관성, 적용성의 측면에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true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취업 준비 경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질문하였으며 참여자의 원래 진술로 돌아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에게 분석과정과 결과 도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의 신빙성을 높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

어 참여자가 진술한 졸업 준비 경험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편견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된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 가정을 기술하고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반성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자료에만 몰입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려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며 참여자들에게 유사한 맥락에서 질문을 반복했을 때 연구결과가 일관적인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확보를 위해 Colaizzi [14]가 제시한 6단계의 분석 방법을 철저히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 도출을 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이나 장소에서도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와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간호 대학생 3명에게 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연구결과에 공감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용성이 확보되었다.

###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간호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 연구를 통하여 간호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졸업을 앞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취업 준비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연령은 20대 초반(20~23세)이 4명, 20대 중반(24~26세)이 3명이었으며, 참가자 7명 모두 여성이었다. 전체 중 6명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일반대학 간호학과 학생이 2명, 전문대 간호학과 학생이 5명이었다. 7명 모두 자대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6명은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며 모두 자신이 취업을 희망한 병원에 취업하

였다고 답하였다. 참여자의 성적 분포는 학과성적 백분율 기준으로 1~10%가 3명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31~50%가 2명이었다. 참여자가 취업이 확정된 취업병원의 규모는 대학병원이 전체 중 4명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이 2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취업지원횟수는 10회 이상이 3명, 최종합격까지 취업지원 횟수는 1~3회가 전체 중 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졸업을 앞둔 간호 대학생의 취업 준비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진술은 101개이고, 37개의 주제모음, 5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졸업을 앞둔 간호 대학생의 취업 준비 경험의 5가지 범주는 ‘취업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경험함’,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음’,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개발함’,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이었다.

#### 범주 1. 취업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경험함

‘취업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경험함’의 범주는 ‘학교의 이름이 합격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줌’, ‘병원과의 연계여부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줌’, ‘원하는 정보를 취업지원센터에서 얻을 수 없음’, ‘병원 지원 과정에서 교수님과 갈등을 겪음’, ‘병원의 합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5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경험하였다.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성적과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라는 이유로 서류 탈락을 하거나 면접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면접에서는 본 병원에 실습을 나왔던 지원자에게 면접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지원자 대비 최종 합격자 수도 많은 것을 경험했다. 교수님의 인맥이나 대학과 같은 지역의 병원 등 병원과 학교가 연계된 부분이 있는 것이 취업에 유리했다. 교내 취업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 유명한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업 프로그램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취업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병원 지원 시 지도 교수님이 나뉘는 기준을 정하고 서류 지원을 막는 경우에 참여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참여자들은 병원이 지원자들에게 적용하는 합격의 기준이나 선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병원을 지원할 때나 발표를 기다릴 때 모호한 기준 때문에 힘들었다.

배척시키는 게 아니라 가산점을 주는 거지요 뭐든지 일차합격자를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 생각엔 일차 합격자를 고르는 기준이 학교 이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여자 2)

학교이름? 학교 이름이 낮아서 성적이 좋아도 그저 그런 애로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참여자 4)

확실히 실습지인 병원에 몇 명이 갔는지 따져보면 그 병원이 실습지인 애들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똑같이 지원을 했어도... (참여자 5)

교수님도 잘 아는 사이이거나 그렇게 되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5)

모의면접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건데, 걸모습만 지적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도움이 안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일단 내가 다니는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별로 믿질 않아요 (참여자 4)

체계적이지 못해서... 선생님께서 봐주시는 분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혼자 준비하시고 봐주시니까.. (참여자 5)

솔직히 제가 붙을지 안 붙을지 교수님도 모르실텐데 안된다고 하시니까.. 애초에 나를 명단에서 제외시켜 버릴 때.. (참여자 1)

저도 불안하니까 나뉘는 여러 군데를 쓰려고 하는데 교수님의 성향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합격이나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다른 병원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참여자 5)

대학교 들어가는 건 내신 2등급까지 뭐 이런 식의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병원 들어가는 건 성적이 높아도 꼭 붙는 게 아니니까..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참여자 2)

## 범주 2. 취업준비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

‘취업준비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의 범주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병원별로 준비하는 것에 막막함을 느낌’, ‘취업 준비 과정에서 병원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교수님께 원망을 느낌’,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느낌’,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계속되는 서류탈락으로 무기력함을 느낌’,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낌’,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담감을 느낌’, ‘병원이 지원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무례함을 느낌’, ‘원했던 병원에 불합격으로 좌절감을 느낌’, ‘주변 사람의 결과와 비교하며 회의감을 느낌’이라는 9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각 병원마다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맞춘 자기소개서를 여러 개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다. 병원 지원 시 교수 추천서를 요청하자 성적, 인재상등 여러 이유를 대며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을 때 교수님에 대해 원망을 느꼈다. 이는 교수님과 마주치는 시간은 극히 일부인데 교수님은 단편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과거에 열심히 하지 않아 준비 되지 않

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를 느꼈다. 또한 계속되는 서류 탈락으로 참여자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무기력함과, 이상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을 느꼈다. 부모님의 기대는 참여자들에게 부담을 느끼도록 했다. 병원 면접 시 참여자들은 병원이 지원자를 중요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무례함을 경험했다. 간절히 원했던 병원의 불합격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의 결과와 자신의 결과를 비교하며 본인의 능력에 대해 회의감을 가졌다.

병원에 맞춘 그 병원만의 자기소개서를 여러 개 써야 되니까 되게 막막했어요 (참여자 7)

교수님께 이 병원에 지원하고 싶다. 이야기를 드리면 너는 인재상에 적합하지 않다, 성적이 조금 힘든 것 같다고 하면서 못쓰게 할 때 진짜 원망스러웠어. 취업이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과 마주치는 시간은 극히 일부면서 나에 대해 잘 안다는 듯이 인재상이 아니라고 하는게.. (참여자 1)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나보다 공부 잘 한 다른 애들이 좋은 곳 합격 한 거 보면 난 왜 예전에 그렇게 놀았었나 후회가 됐어요 (참여자 6)

나도 뭔가 면접이라도 가서 입이라고 한 번 떼보고 떨어지면 말을 안 하는데 계속 서류에서만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게 다 무기력해지는 기분?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죠 (참여자 7)

높은 병원을 가고 싶다는 욕심에 성적이랑 스펙이 부족해도 지원을 했는데 막상 떨어지는 걸 보니.. 음 역시 현실과 이상은 다르구나. 현실과 이상에 괴리감을 느꼈어요 (참여자 6)

그니까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께서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참여자 5)

제가 갔던 어떤 병원은 서류는 무조건 합격이지만 2차 면접에서 판가를 나는 병원이었습니다. 지원자만 1000명이 넘었는데 면접장에 들어가니 방 하나가 면접장이 아니라 파티션을 세워서 동시에 세 구역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여기는 아무리 직원을 뽑기 위한 자리지만 배려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면접자들이 하는 것과 소리가 섞여서 잘 들릴까 싶기도 하고 개인질문을 했는데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자 6)

정말 좌절.. 했습니다. 그니까 일단은 거기만 바라보고 공부했던 거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었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니까 많이 좌절했죠.. (참여자 5)

주변 애들은 또 서류 막 어디 붙어서 뭐.. 된다 이런 얘기 들리면 내가 뭐가 모자랐나? 내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참여자 7)

### 범주 3.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음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음’의 범주는 ‘학교 내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됨’, ‘취업 준비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받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에게 도움을 받음’, ‘친구들이 경험에 따라 면접 준비 과정에 도움을 줌’, ‘친구들의 위로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됨’, ‘교수님이 면접에 실제적인 도움을 줌’, ‘교수님의 격려로 힘을 얻음’, ‘종교에 의지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음’, ‘간호 커뮤니티에서 실제적인 면접정보를 제공받음’이라는 9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취업 과정에서 여러 정보적 한계와 정서적으로 힘든 것을 겪었다. 이 때, 다양한 지지체계를 통해 면접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았다. 학교 내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평소 경험해보지 않아 힘들었던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면접을 통하여 말하는 법과 태도, 외적인 것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았다. 가족들은 취업에 대한 것을 자신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

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가족들은 취업에 대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취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먼저 취업 준비를 경험한 친구들에게 면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로를 격려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았다. 교수님은 면접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적인 병원지원을 격려하여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였다. 종교적 믿음으로 상황에 따른 감정을 극복하고 힘을 얻었으며, 간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지지체계가 되었다.

자기소개서는 저희 취업상담센터에서 봐주시는 분이 정말 잘 봐주시는 분이어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학교에서 모의면접을 진행했었어요. 어디서든 면접 같은 분위기에서 말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했었는데 그 모의 면접이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 7)

저희 부모님은 전적으로 저의 결정에 맡기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셔서... (참여자 2)

언니가 간호사니까 간호지식 같은 거 많이 알려주고, 언니네 병원 면접 볼 때는 후배가 작년에 무슨 질문 받았다고 알려주곤 했어요. (참여자 1)

취업을 경험해 본 친구들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서 도움이 됐고... (참여자 7)

제가 계속 서류 탈락을 했을 때 주위에 친구들이 막, 아직 시간 많다는 식으로 위로를 많이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멘토링 교수님께서 자소서도 잘 봐주시고 병원에 대해서 찾아봐주셔서... (참여자 3)

교수님이 오히려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떨어지더라도 괜찮다기보다는 또 써보라는 식으로 위로를 해

주셔서 저는 고마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저희 엄마가 이번에 제가 붙었을 때 하시는 말이 아빠랑 계속 기도 했다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 위로를 받았죠. (참여자 1)

인터넷에 취업하는 학생 간호사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 많은 정보가 있어서 거기서 한 80% 정도는 얻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 범주 4.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개발함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개발함'의 범주는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조리 있게 말 하게 됨.', '취업 준비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의 좋은 점을 본받음.',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나쁜 습관을 고침.', '취업 준비 과정에서 병원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간호지식을 습득함.',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간호관을 확립함.'이라는 7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면접 시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웃는 연습을 반복하여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20분 남짓한 면접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전보다 조리 있는 말투를 취할 수 있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면접,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자들을 만나 그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받고, 좋은 점을 본받았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 하였다. 평소 게으르던 생활 습관을 취업 준비를 통해 부지런한 생활 습관으로 개선하였으며, 평소의 나쁜 습관을 시간 내에 고칠 수 있도록 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 참여자들은 병원 서류나 면접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자료와 지식을 얻게 되었다. 병원 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병원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조사하

여 이전의 좁았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원하는 부서를 지원하면서 그 부서에 관련된 정보와 간호지식을 공부하였다. 본인이 실습했던 부서에서 배웠던 전반적인 간호지식들을 면접을 준비하면서 정리해볼 수 있었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을 준비하며 내가 꿈꾸는 간호사, 나의 미래 계획,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간호사 등의 질문에 답변을 달며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간호사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표정관리를 계속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주? 몇 달 간은 계속 웃는 표정을 연습을 해서 약간 저의 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이 면접 준비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저는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해요. 그래서 면접 보는 데도 1차만 보고 2차까지 있는 데는 꺼려했거든요. 좀 지리멸렬? 하게 앞뒤 맥락 없이 말해서 평소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표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죠. 덕분에 지금은 조리 있게 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자 6)

면접장에서 다양한 면접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보편적이라는 게 은연중에 있었는데 면접을 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어요. (참여자 6)

원래 게을러서 과제도 제출 날에 하고 좀 불성실했는데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간호사 생활에 있어서 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소서 쓰는 거나 서류 넣는 거, 면접 질문을 뽑아놓고 답 달아 보는 거 등등 미리미리 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참여자 1)

음.. 제가 병원을 되게 여러 번 그니까 교수님이 추

천서를 안 써주셔서 제가 원서는 많이 넣긴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추천서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써주니까 많이 걸리지긴 했었는데 제가 원서를 많이 쓰면서 뭐라고 해야 하지? 여러 병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런 뭐라고 해야 하지? 약간 뭐가 채워졌다고 해야 하나? 그니까 인식이 되게 많이. 옛날에는 되게 좁았었다면 지금 병원을 보는 되게 그런 것이 커진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참여자 5)

아무래도 지원 동기나 지원 부서를 쓰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부서에 대한 간호지식 같은 것을 공부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제가 제일가고 싶은 병원이 면접 때 간호지식을 물어본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 그 병원 중환자실 실습을 나가봐서 아무래도 중환자 분야로 물어볼 것 같아서 심장 쪽이랑 ventilation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했거든요. 대충 열렁뚱뚱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확실히 할 수 있었고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었어요. (참여자 4)

자기소개서에 미래의 포부나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을 쓰면서 내가 나중에 어떤 간호사가 될 건지, 어떤 마음으로 간호를 할 건지, 그런 가치관? 같은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좀 막연했었거든요. (참여자 7)

## 범주 5. 취업준비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

‘취업준비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의 범주는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행복감을 느낌’,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낌’, ‘취업 준비 과정에서 목표를 이루어 낸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낌’, ‘취업에 성공하여 다행을 느낌’, ‘지원한 병원에 합격하여 환희를 느낌’, ‘취업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났다는 것에 대



해 흥가분함을 느낌'이라는 7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신이 스스로 지원할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간절히 원하는 병원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원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감을 느꼈다. 또한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적성 시험 등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참여자들은 취업 준비 과정 중,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뿌듯해 했다.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외국어 성적, 자격증, 학과 성적 등의 다양한 스펙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어 냈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 이전에 계속 탈락의 고배를 맛보았던 참여자들은 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취업에 성공한 것에 다행감을 표현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원한 병원에 합격하였을 때, 신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환희를 표현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나서 다시 취업 준비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어 흥가분하다고 느꼈으며, 일상생활도 함께 흥가분해졌다고 표현했다.

제가 그렇게 높은 성적도 아닌데 제 인상도 좋고 평소에 성실히 했던 모습을 교수님이 좋게 봐주셔서가고, 제가 쓰기엔 좀 높지만 평소에 너무 가고 싶었던 병원을 그래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거든요 그 때 붙은 것도 아닌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참여자 6)

처음에 딱 취업준비 할 때에는 제가 그렇게 성적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기대도 안했고 자신도 없었는데 그래도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 하면서 하면 되는구나 싶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참여자 3)

저는 성적은 좀 낮지만, 평소에 친구들이 말을 또박 또박 크게 잘 하는 게 장점이라고 했어요 면접에 가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크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하니까 다른 지원자들은 눈길도 안 주다가 저에게 시선

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때는 되게 뿌듯했어요 (참여자 1)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갔다가 수업 듣고 전철로 갔다가 숙제하고 나면 보통 하루에 3~4시간 잤나? 그래도 토익점수를 내가 원하는 점수까지 올렸기 때문에 되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참여자 2)

아, 진짜로 제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러다 취업 못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지원한 병원에 결국 붙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참여자 6)

병원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요 기뻐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 너무 너무 기뻐서 옆 사람을 끌어안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기뻐거든요 (참여자 7)

딱, 최종합격. 네 글자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끝났다. 드디어 취준생에서 탈출 했구나, 했어요. 그 뒤로는 학교에 올 때도 뭔가 흥가분했어요 (참여자 6)

## IV. 논 의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4학년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을 이해하고자 참여자의 진술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취업률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간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비교적 낮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Hwang[16]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고된 교육과정 속에서 간호 대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좋은 병원'으로의 취업을 위한 취업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타학과 4학년 여대생의 취업 스트레스 49.3점보다 높은 53.4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간호 대학생은 대학에서 제공한 취업 프로그램, 선배와 교수의 조언, 가족의 지지 및

인터넷 간호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아 취업 준비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의 지지는 진로발달에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진로관련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Metheny[17]의 연구결과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취업의 벽을 낮게 지각한다는 Cho[11]와 Seo[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Hwang[16]의 연구에서 학생의 취업 준비도 향상을 위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주요한 지지체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Shin[1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생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지 않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에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먼저 취업에 성공한 친구의 조언, 선배나 교수의 도움 및 가족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체계는 취업 준비과정에서 위기를 직면하는 간호 대학생에게 주요한 극복 자원으로 역할을 하였다. 이는 Hwang[16]의 연구에서도 동거 가족의 지지, 사회적 자원이 많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지지체계를 활용한 정보는 취업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막막함, 준비 부족에 대한 후회 및 좌절감, 무력감과 괴리감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간호 대학생은 자신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감, 뿌듯함 그리고 최종적으로 취업 성공을 통한 행복감, 안도감, 환희 및 휴가분함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취업준비 대학생이 느끼는 취업 장애물과 취업경쟁요인은 기존의 학문중심 대학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직업교육과 취업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청년 실업률이 11.3%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높은 현 시점[6]에서 대학의 역할은 학

문 탐구의 목적과 함께 교양 있는 직업인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최근 대학은 취업률을 주요한 지표로 삼아 지표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고, 산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인턴사원제도, 산학협력제도를 운영하여 있다[19, 20]. 그러나 대학의 이런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평균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은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일대일로 진행되지 않아 체계적이지 않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회의를 느낀다는 Shin[12]의 연구결과와 같이 학생의 요구 및 변화하는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및 병원별 모의면접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표면화하여 상처를 받았지만 이를 개선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불확실성은, 막연한 취업 불안이나 취업에 대한 심리적 벽으로 인지되어, 취업준비 대학생의 대학생활이나 취업준비 행동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진로나 취업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이 가장 다빈도라는 Seo[13]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도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탈락으로 인한 좌절감, 취업 준비도 부족으로 인한 후회,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또한 학생의 역량에 따라 지원 병원을 제한하는 교수의 반대에 서운함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이 느낀 취업 장애물은 대학교의 인지도가 낮아 병원 면접을 볼 때는 자대병원 학생들과 비교해 부당함을 경험하였다. 대학교 브랜드 가치로 자신의 취업 합격 여부가 결정된 것이라는 부당함을 경험하면서 최근 제안되는 블라인드 채용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참여자가 경험한 취업 불안은 개인에 따라 심리적 장애물로 작용하였지만 반면에 취업준비 대학생들이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취업 준비행동을 증가시켜 동기부여의 주요한 자원으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웃는 얼굴을 연습한 결과 자신의 표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말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간호사로서의 주요한 역량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어떤 간호사가 될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병원의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진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간호 대학생은 취업 과정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뚜렷한 전문직업관을 확립하고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과 비교하여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Ahn과 Kim[18]의 연구결과와 같이 힘든 과정이지만 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성숙하는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의 취업에 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취업 준비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과 느꼈던 심리적 정서에 대해서 기술하고 범주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7명을 편의 추출하여 비지시적이고 비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을 통해 면대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Colaizzi[14]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음’, ‘취업준비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 ‘취업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경험함’,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개발함’, ‘취업 준비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 5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원 지원서를 작성하며 교수님과의 갈등,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병원의 합격기준 불명확 등의 장애물을 경험하고 있

었다. 또한 취업준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이 부족하며 병원별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에 막막함을 느끼고, 지원한 병원에 탈락하여 무기력함,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후회,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 교수님, 친구, 부모님, 교수님 등의 지지체계가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 대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및 도움이 되었다. 간호 대학생들은 취업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이뤄내고 원하는 병원에 취업을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 환희, 행복감, 뿌듯함, 다행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을 통해 조리 있게 말하게 됨,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간호지식의 습득 등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간호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있어 지지체계가 큰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지체계 항목 중 ‘학교 내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됨’, ‘교수님이 면접에 실제적인 도움을 줌’의 경우 장애물의 항목에도 ‘원하는 정보를 취업지원센터에서 얻을 수 없음’, ‘병원 지원 과정에서 교수님과 갈등을 겪음’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는 지지체계임과 동시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요구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지도교수의 효과적인 취업상담 및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Bae OH, Hong SU. The study of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degree on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8;17(1):27-34.
2.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 Institute. Results of analysis of 2017 nurse license test [Internet]. Seoul : kuksiwon; 2017 [cited 2018 June 12]. Available from: <http://www.kuksiwon.or.kr/Publicity/ItemInfoDataView.aspx?SiteGnb=5&SiteLnb=3>
3.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edical service usage statistics by region [Internet]. Seoul : 2017 [cited 2018 June 12].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4.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 Yearbook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statistics [Internet]. Seoul : 2017 [cited 2018 June 12]. Available from: <http://www.stat.mw.go.kr/stat/data>.
5. Korea Nurse Association. Webzine koreanurse 2016 [Internet]. Seoul : 2017 [cited 2018 June 12]. Available from: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2014/read\\_article.phpwebzine\\_id=44&sub\\_cat\\_id=458&is\\_sub\\_no=756&article\\_id=1003](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2014/read_article.phpwebzine_id=44&sub_cat_id=458&is_sub_no=756&article_id=1003).
6. Statistic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ternet]. Seoul : 2017 [cited 2018 June 12].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7. Cho SH, Jeon GS. 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in west south area.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5; 23(2):79-89.
8. Kim EJ, Choi KW. The effects of the depression and job-seeking stress on the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012;19(2):231-239.
9. Ihm CS, Yang BM. An analysis of employment selection and school to work transition(STWT)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6;24(3):1-26.
10. Choi SH, Lee HY.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 13(12):808-816.
11. Cho HJ. A study on the stress involving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2013;24(1):157-184.
12. Shin HJ. The meaning o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 preparation process for a job.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8;25(2):1-35.
13. Seo HJ.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2016;24(1):43-64.
14. Colaizzi PF.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44-71.
15. Lincoln YS, Guba E. *Naturalistic inquiry*. 2nd ed. Beverly Hills CA: Sage; 1985 p.310-334.
16. Hwang RI.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2;26(2):215-226.
17. Metheny JR.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young adults: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ocial status and family support. 2009; Unpublished manuscript.
18. Ahn SM, Kim KH.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1):555-565.
19. Han J, Bang J. Development of a model for management system in internships or field training.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14;17(3):42-50.
20. Kang G, Won S. The education course getting a job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3;16(1):155-172.